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성 발달과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오 윤 선* 최 아 람**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성 발달과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6년 제7차 데이터에서 후기청소년 1,881명 중 기독교 후기청소년 388명을 추출하여 조사·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한 통계자료는 SPSS Win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인식, 사회성 발달, 삶의 만족도는 서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은 자아인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회성 발달과 삶의 만족도는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사회성 발달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후기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긍정적일 때 이들의 자아인식이 건강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모자녀 관계의 현주소 파악이 중요하다. 후속연구는 관련 주제로 심층적인 질적연구와 각종 프로그램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부모양육방식, 자아인식, 사회성 발달, 삶의 만족도, KCYPS

• 논문 투고일: 2019년 3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9년 4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5월 5일

* 한국성서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교수

**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외래교수

I. 여는 글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 원형은 부모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기본적·영속적 관계자로서 가치관 형성과 사회화 과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는 단순히 생리적·혈연적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정과 신뢰, 양호(養護), 의존, 권위, 존경 등의 관계로 융화되어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정서적 관계까지 포괄한다(최정혜, 2018).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친구, 동료, 배우자뿐 아니라 훗날 자녀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양육 방식은 자녀의 성격 형성과 사회화 과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Bronfenbrenner, 1975). 즉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양육방식은 자녀의 인격 및 정서 발달, 자아인식, 사회성 형성 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는 당연히 기독교인에게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별 발달과 함께 더 나아가 자녀의 신앙과 기독교적 유산의 계승 영역에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자아정체감 형성기인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 존재의 면모를 추구하는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형성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후기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부모와의 갈등 빈도는 다소 감소할지라도 그로 인한 부정감정은 이전에 해소되지 않은 것들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허혜경, 김혜수, 2010).

기독교 후기청소년 가운데 신앙교육을 받아왔지만 인간관계 원형인 부모의 역기능적 혹은 부정적인 양육으로 인해 정서문제와 자아인식 문제를 지니게 되어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머무르는 경우를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김진영, 박승민, 2012; 서경림, 한재희, 2010; Bartle & Anderson, 1991).

또한 이들 중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타인의 시선을 만족시키

기 위해서 갈등을 내면화하고 ‘가면’ 쓰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박진우, 2018)와 함께 부모가 원하는 비현실적 기대감에 따라 살지 못함으로 인한 수치심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최주혜, 2013). 특히 이들 중에는 부모의 일방적 양육방식으로 인한 정서와 자아인식에 대한 문제(민경림, 2009; 송기정, 2018)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해외 선교사 청소년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권위적 양육방식 및 높은 기대로 인한 과도한 부담감과 타인의 시선 의식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윤다운, 권경인, 2015).

기독교 후기청소년들 가운데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서로 간 관계 문제로 인해 겪는 심리적 문제로 22.2%가 우울장애를 경험하고(김재연, 2008), 28.9%가 극단적인 생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열, 2014). 뿐만 아니라 후기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과 관계에서 긍정적인 유형이 부정적인 유형에 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사훈, 2005; 김홍근, 2003; 문희경, 2007). 이는 자녀들의 심리적·정서적 건강과 신앙성숙에 가족체계 유형과 부모 양육방식이 중요함을 의미한다(이영주, 2007).

따라서 후기청소년 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개인적 문제와 더불어 가족체계 및 부모양육방식의 현주소 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까지 대학생 대상 부모양육방식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박균달, 이수영, 2017; 이주연, 조연희, 2015)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후기청소년들을 포함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며, 특히 기독교 후기청소년 대상의 연구는 실시되지 못했다. 그 뿐만 아니라 후기청소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자아인식의 범주에 속한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을 사회성 발달과 삶의 만족도와 관련지어 부모양육방식과 접근을 시도한 연구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진학 중이거나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사

회에 진출한 같은 연령대의 한국 기독교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양육방식에 다양한 변인을 대입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의 범주에 속한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긍정적 양육방식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사회성 발달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도출함으로써 후기청소년 지도와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급격한 변화 및 변혁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성 함양 및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인식(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사회성 발달, 삶의 만족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은 자아인식의 범주에 속한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인식의 인과관계에서 사회성 발달과 삶의 만족도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기독교 부모양육방식의 이해와 선행연구 동향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서 가장 기본 단위이며 최초 교육의 장이다. 따라서 부모양육방식은 자녀의 하나님 표상(God representation)과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은 부모양육의 모델로서 자녀들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다(눅 15:32; 요1:14, 3:16; 딤후 3:3-7; 히 2:17-18; 벧전 5:7). 그리고 한편으로는 통제(징계)를 통해서 신실하고 순종의 삶을 요구하신다(잠 3:11-12; 히 12:5-8; 계 3:19).

성경적 부모양육방식에서는 자녀의 성숙 및 연속적 발전(잠 20:5; 롬 12:3; 빌 1:10)과 함께 부모의 성숙도 요구된다(암 3:3; 시 73:12-13; 고전 14:30; 약 1:19). 즉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 자녀의 성숙 또한 늦춰지거나 멈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Hersey와 Blanchard (1988:174-179)는 기독교적 부모양육방식을 말하기, 가르치기, 참여하기, 맡겨두기(delegating)로 제시하였다. 이들 역시 자녀와 부모의 성숙을 함께 강조했다.

부모양육방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불구하고, 20세기 초 이전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학문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인 가정을 포함한 많은 가정들이 자녀에게 엄격한 훈육과 체벌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인 양육방식으로 여겼기 때문이다(Berger, 1991).

최초의 부모양육방식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Symonds(1949)에 의한 것으로, 그는 이를 수용-거부(accept-rejection), 지배-복종(domination-obedience) 두 가지 차원으로 유형화하였다. 뒤이어 Schaefer(1961)는 사랑(수용)-적의(거부), 자주(자율/자유)-통제(소유)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Becker(1964)는 수용적-적의적, 허용적-제한적으로 유형화하였고, Baumrind(1967)는 권위 있는(authoritative),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적, 방임적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Dinkmeyer와 McKay(1990)는 명령형, 자율형, 양보형으로 유형화하였다.

한국에서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애정-적의, 자율-통치, 합리-

비합리, 성취-비성취로 유형화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유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어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허묘연(2000)의 긍정적 양육 방식인 애정, 합리적 설명과 부정적 양육방식인 감독, 비밀관성, 학대,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의 유형화를 적용하였다.

부모양육방식에 대한 정의는 Fishbein과 Ajzen(1975)의 문화양식에 따른 정의부터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진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 하면, 한 사회·문화적 틀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들과 지내는 방식, 가르치고 지도하는 방식, 키우고 돌보는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반복적, 보편적인 행동 및 태도의 경향성을 의미한다(서기남, 문혁준, 2008; 이영주, 2007).

현재까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결과, 부모양육방식에는 부모의 신념, 가치관, 생활습관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녀의 후기청소년기를 비롯한 모든 성장과정에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인격적으로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란영, 김희화, 2016; Meeus, Oosterwegel, & Vollebergh, 2002).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격 형성, 자아개념, 가치관, 사회적응력 형성 등에도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경수, 2014; Ronald & Medinnus, 1967).

최근까지의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 양육자 관련 연구는 어머니 양육방식 연구(류미숙, 권미경, 2011; 장인실, 장석진, 2012)와 아버지 양육방식 연구(김정현, 정인경, 2015; 조하영, 박성연, 2013) 등이 있다. 그리고 긍정적 부모양육방식이 자녀의 또래관계와 사회성 발달, 학교적응, 진로결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희수, 2005; 임선아, 2014; Cohen, 1990; Dekovic & Janssens, 1992)와 반대로 부정적 부모양육방식은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전현정, 정혜원, 2016; Putallaz, 1987; Rohner, 1991)가 계속 증가하고 있

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독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미진할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후기청소년들의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시대적 상황에서 대학생에 포함되지 않은 후기청소년 대상의 연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2) 자아인식의 이해와 선행연구 동향

인간은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독립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이를 지닌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자아인식은 대인관계 및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자아인식(self-awareness)은 자신과 타인이 구별되는 특성으로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과 평가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인들의 평가나 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남윤주, 2009). 특히 후기청소년기에 있어 자아인식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인식(self-awareness)의 범주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으로 규정하여 사용하였다(김영숙, 1997; Harter & Pike, 1984). 각각의 변인에 대한 이해와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ego-identity)은 1950년대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Erick Erickson(1968)이 처음 사용한 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Erickson이 말한 자아정체감의 의미는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로서의 나’의 통합감이고 둘째,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에 대해 연속적으로 인식하는 일관성이며 셋째, 주체적 자아(I)와 객관적 자아(Me) 간의 조화를 의미하고 넷째, ‘나는 나다’라는 실존적

의미를 말한다. 이 네 가지 자아정체감의 관점은 독립된 관점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각각의 관점들은 연구 분야에 따라서 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아정체감 의미를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오윤선(2017: 124)은 “자아 정체감이란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며 고유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동시에 환경이나 외적인 자극, 내부의 감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질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자신을 인식하며 안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자아정체감 확립은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지만, 성인기로의 전환을 앞둔 후기청소년기야말로 이를 확립하기에 강력하고 결정적인 시기라 할 수 있다(Erickson, 1980). 이 시기에 적절한 자아정체감 확립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장점 뿐 아니라 단점도 적극 수용하여 한 개인으로서 자기 통합을 이루고 주체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게 된다(박아청, 2006; 송연옥, 2008).

최근까지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대상의 연구(오선영, 송순, 2012; 전명순, 김태균, 2018)와 대학생 대상의 연구(박소연, 김한별, 2013; 한누리, 문혁준, 2015)를 비롯하여 목회자 아내 대상의 연구(김신섭, 정구철, 2015), 국제결혼가정 자녀 대상의 연구(최윤희, 김순자, 2011), 전문직 여성 대상의 연구(정영혜, 양성은, 2011) 등과 같이 특정 대상을 다룬 연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생과 비대학생을 포함한 기독교 후기청소년 대상의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William James(1890)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스

스로의 능력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Coopersmith(1967)는 스스로의 능력을 평가하여 이를 유지하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신념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Gecas와 Schwalbe(1986)는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느끼는(self-worth) 것으로 보았고, Branden(1992)은 역경이 닦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스스로를 향한 믿음이라고 여겼다. 기독교 심리학자 David A. Seamands(1990: 162)는 “자아존중감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신을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 평가다”라고 하였다. 또한 복음주의 상담학자 Gary R. Collins(1996: 486-489)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 능력, 중요성에 대한 개개인이 내리는 자기 평가”라고 하였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자아존중감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로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여 스스로의 가치, 능력,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오윤선, 2012). 즉 현재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에 대한 평가로, 높을수록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Kaplan(1982)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려는 개인의 욕구와 동기를 보편적·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 대상의 연구(김정욱, 김재호, 2018; 김희수, 2005; 임선희, 명재신, 2016; 임양미, 2018)와 대학생 대상의 연구(박미하, 2017; 전소연, 주은지, 2018), 부모 대상의 연구(김미정, 2013; 전요섭, 2013), 척도 개발 연구(최보가, 전귀연, 1993), 특정 대상의 연구(최예나, 2018)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자아탄력성

탄력성(Resilience)은 라틴어 *resilio*에서 유래된 용어로, 본래는 물체의 성질이 유연하며 신축성 높은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였다(강연정,

2012). 정신분석학자 Block은 resilience 앞에 ego를 붙여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Block & Block, 1980).

자아탄력성이란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일시적인 상황 및 사건에서 좌절과 스트레스가 발생할지라도 이를 잘 이겨내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혼란 전 자아 통제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내적 능력의 의미이다(Block, 1982). 즉 위험한 환경적 변화 속에서도 긍정적 결과를 성취하고 급성 혹은 만성 생활 스트레스 사건에 잘 대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나 역경에서 힘을 얻어 외상사건으로부터 빠른 회복을 나타내는 풍부한 개인의 내·외적 능력이다(Luther, 1991; Masten, Best, & Garmeazy, 1990).

자아탄력성을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일반심리학 관점에서 보다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한다. 즉 시련과 고난, 역경 가운데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긍정적 기회로 해석하는 것이다(오윤선, 2017). 이의 연장선 격으로, 성경적 관점의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처한 고난과 역경을 단순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이겨내는 것을 넘어선다. 제한된 인간의 관점을 벗어나서 확장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를 이해하여 인간적 시각의 해석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하는 것이다(강연정, 2012). 즉 높은 자아탄력성을 지니면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역경을 직면하여 극복하고 영적·정신적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성경적 관점으로 긍정적 자아상을 획득하고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성경 속 인물들로는 요셉(창 37:5-11; 39:3; 50:20), 모세(출 2:14-15; 민 12:3), 다윗(삼상 17:36-37), 바울(빌 3:7-14; 4:10-13) 등이 있다. 이들은 다양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묵상하고 이를 위해 멈추지 않았다(김미경, 2011).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되었다(오윤선,

2013; 2017). 체계적으로는 역기능적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Rutter(1985)의 연구부터 이루어졌다(Rutter, 1985). 그의 연구 결과, 역기능적 부모에게 양육 받은 아동일지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보다 정신건강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자아탄력성 관련 연구는 청소년 대상의 연구(김민주, 윤기봉, 2018; 임선희, 명재신, 2016; 임양미, 2018), 대학생 대상의 연구(김금순, 김보미, 2017; 오윤선, 2017), 유아 대상의 연구(김미정, 2013; 김은주, 이시자, 2015), 특정 대상의 연구(박미혜, 2014; 이순복, 원지현, 2013; 최예나, 2018) 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사회성 발달의 이해와 선행연구 동향

사회성 발달이란 사회 속에서 개인이 타인과 집단, 사회와의 관계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자아를 형성해 나가고 타인과의 협력적 상호작용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다(강경미, 2006). 뿐만 아니라 인간이 속한 환경에 스스로를 맞춰나가는 과정과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과정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주동범, 정일환, 2018).

생활환경이 점차 확장되는 후기청소년기는 사회성 발달의 본격적·핵심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문용린, 1998). 이때 사회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응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부적응은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하며 인간관계에서도 불안을 느끼게 하는 등 전반적인 삶에 부정적인 작용을 일으킨다(De Jong et al., 2011).

사회성 발달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후천적으로 학습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대상은 보통 주 양육자인 부모이다. 부모와의 관계 내 경험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취할 태도를 모델링하고 학습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부모는 개인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원

동력이 된다(Carlo et al., 2012; Zahn-Waxler & Robinson, 1995). 따라서 사회성 발달의 선행연구는 부모와 관련된 연구(조준호, 김두규, 허균, 2013; 최후남, 김태균, 2012)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후기청소년 사이에서는 대인관계에서 높은 수용성을 획득하는 것이 곧 사회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Gresham & Elliott, 1984). 따라서 최근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인관계 관련 연구(양하련, 이은주; 2014)와 사회성 발달을 위한 각종 집단 프로그램 연구(김도희, 2014; 김성수, 2013; 조영미, 이동영, 2016) 등은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4) 삶의 만족도 이해와 선행연구 동향

삶의 만족도는 한 개인이 물질적·정신적 측면에서나 일정한 목표 혹은 욕구 달성 등에 관해서 지극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 및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Burr, 1970; Havighurst, 1968). 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기대와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반복적 과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이며, 개인차가 존재한다(Medley, 1976).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넓은 의미로 삶의 목적과 의미, 사회적 기능을 초월하여 지극히 개인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만족하는지 평가하는 개념(Dinner, 1984)이다. 좁은 의미로는 자신의 삶 자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며 목표 성취를 위해 탄력적으로 주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정서적·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인식하지 않는, 전반적으로 개인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Kalish, 1975). 즉 개인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지각하여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정서를 부정적 정서보다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나성윤, 2017).

삶의 만족도는 보통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측면 위주로 살펴볼 때

사용하는 개념이며, 정서적 측면 위주로 살펴볼 때는 주관적 행복 또는 주관적 웰빙(well-be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권석만, 2008; OECD, 2013).

최근 국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만족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민주, 윤기봉, 2018; 손신영, 2017; 전명순, 김태균, 2018). 그중 특히 후기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김신영, 백혜정, 2008; 김혜원, 홍미애, 2007), 중기청소년이 초기청소년에 비해 높았다(김혜원, 홍미애, 2007). 그리고 심리적·정서적 변수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고 절망감과 적대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김남정, 임영식, 2012). 사회적 변수의 경우 부모자녀 간, 친구 간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또래와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최유선, 손은령, 2015).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의 제7차 통계자료(전체 1,881명) 가운데 기독교 후기청소년 388명을 추출하여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의 분포는 남학생이 172명(44.3%), 여학생이 216명(55.7%)이었으며, 현재신분으로는 대학 재학생 274명(70.4%), 대학 재학 및 취업 14명(3.7%), 취업 38명(9.9%), 하는 일 없음 62명(16%)이었다.

2) 조사도구 구성

(1) 부모양육방식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양육방식 척도는 허묘연(200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부모양육방식인 애정(4문항: 3, 12, 15, 19), 합리적 설명(3문항: 11, 18, 21)과 부정적 부모양육방식인 감독(3문항: 1, 2, 8), 비밀관성(3문항: 9, 13, 14), 과잉기대(4문항: 4, 7, 10, 16), 과잉간섭(4문항: 5, 6, 17, 20)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척도의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허묘연(2000)은 아버지와 어머니 척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아버지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70~.86, 어머니 척도는 .75~.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척도를 합하여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애정 .818, 합리적 설명 .814, 전체 .870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감독 .796, 비밀관성 .747, 과잉기대 .681, 과잉간섭 .706, 전체 .814로 나타났다. 해당 척도의 각 문항과 신뢰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 자아인식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정체감 척도는 송연옥(2008)이 개발한 척도(8 문항)를 사용하였고, 자아존중감 척도는 Rog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10문항)를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2000)에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척도(14문항)를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한국 청소년정책개발연구원, 2017). 자아정체감 8문항 중 부정적인 문항 2, 4, 6, 7, 8번 문항과 자아존중감의 2, 5, 6, 8, 9번 문항은 역채점 처리하여 활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도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송연옥(2008)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

는 .932로 나타났고, 한국청소년정책개발연구원의 제7차 연구에서는 .845로 나타났다. 유성경과 심혜원(2002)의 연구에서는 .6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자아정체감 .741, 자아존중감 .851, 자아탄력성 .818, 자아인식 전체 .903으로 나타났다. 해당 척도의 각 하위영역 문항과 신뢰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3) 사회성 발달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성 발달 척도는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사회적 위축 척도(5문항)를 전체 역채점 처리하여 활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도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김선희와 김경연(1998)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82로 나타났다. 해당 척도의 문항과 신뢰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4) 삶의 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삶의 만족도 척도는 김신영 외(2006)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도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김신영 외(2006)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74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777로 나타났다. 해당 척도의 문항과 신뢰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측정도구

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애정	3, 12, 15, 19	4	.818
	합리적 설명	11, 18, 21	3	.814
	전체		7	.870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감독	1, 2, 8	3	.796
	비일관성	9, 13, 14	3	.747
	과잉기대	4, 7, 10, 16	4	.681
	과잉간섭	5, 6, 17, 20	4	.706
	전체		14	.814

자아인식	자아정체감	1, 2*, 3, 4*, 5, 6*, 7*, 8*	8	.741
	자아존중감	1, 2*, 3, 4, 5*, 6*, 7, 8*, 9*, 10	10	.851
	자아탄력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818
	전체		32	.903
	사회성 발달	22*, 23*, 24*, 25*, 26*	5	.882
	삶의 만족도	1, 2, 3	3	.777

*역산채점

3) 자료분석의 기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인식, 사회성 발달,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때 통계의 유의확률은 95%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사회성 발달과 삶의 만족도가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간접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의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의 결과분석 및 해석

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인식, 사회성 발달,

삶의 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는 다음 <표 2>에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중 애정은 합리적 설명($r=.646, p<.01$)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중 비일관성($r=-.440, p<.01$), 과잉기대($r=-.295, p<.01$), 과잉간섭($r=-.395, p<.01$)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자아인식의 모든 하위변인인 자아정체감($r=.257, p<.01$), 자아존중감($r=.369, p<.01$), 자아탄력성($r=.364, p<.01$)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사회성 발달($r=.163, p<.01$)과 삶의 만족도($r=.359, p<.01$)와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중 합리적 설명은 비일관성($r=-.309, p<.01$), 과잉기대($r=-.236, p<.01$), 과잉간섭($r=-.300, p<.01$)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자아인식의 모든 하위변인인 자아정체감($r=.256, p<.01$), 자아존중감($r=.329, p<.01$), 자아탄력성($r=.277, p<.01$)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사회성 발달($r=.175, p<.01$)과 삶의 만족도($r=.338, p<.01$)와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중 비일관성은 과잉기대($r=.473, p<.01$), 과잉간섭($r=.583, p<.01$)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자아인식의 모든 하위변인인 자아정체감($r=-.334, p<.01$), 자아존중감($r=-.289, p<.01$), 자아탄력성($r=-.179, p<.01$)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사회성 발달($r=-.171, p<.01$)과 삶의 만족도($r=-.220, p<.01$)와도 부적(-) 상관이 있었다. 과잉기대도 과잉간섭($r=.701, p<.01$)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자아인식의 모든 하위변인인 자아정체감($r=-.166, p<.01$), 자아존중감($r=-.183, p<.01$), 자아탄력성($r=-.119, p<.05$)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사회성 발달($r=-.110, p<.05$), 삶의 만족도($r=-.185, p<.01$)와도 부적(-) 상관이 있었다. 과잉간섭은 자아인식의 모든 하위변인인 자아정체감($r=-.306, p<.01$),

자아존중감($r=-.289, p<.01$), 자아탄력성($r=-.184, p<.01$)과 부적(-) 상관
 이 있었으며, 사회성 발달($r=-.156, p<.05$), 삶의 만족도($r=-.250, p<.01$)와도 부적(-) 상관
 이 있었다. 자아정체감은 자아존중감($r=.602, p<.01$), 자아탄력성($r=.523, p<.01$), 사회성 발달($r=.597, p<.01$), 삶의 만
 족도($r=.434, p<.01$)와 정적(+) 상관
 이 있었다. 자아존중감도 자아탄력
 성($r=.573, p<.01$), 사회성 발달($r=.480, p<.01$), 삶의 만족도($r=.662, p<.01$)와 정적(+) 상관
 이 있었다. 자아탄력성 역시 사회성 발달($r=.429, p<.01$), 삶의 만족도($r=.520, p<.01$)와 정적(+) 상관
 이 있었으며, 사회성 발달도 삶의 만족도($r=.361, p<.01$)와 정적(+) 상관
 이 있었다.

〈표 2〉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N=388)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긍정적 부모 양육 방식	1.애정	1									
	2.합리적 설명	.646**	1								
부정적 부모 양육 방식	3.감독	.345**	.329**	1							
	4.비일관성	-.440**	-.309**	-.040	1						
	5.과잉기대	-.295**	-.236**	.051	.473**	1					
	6.과잉간섭	-.395**	-.300**	.028	.583**	.701**	1				
자아 인식	7.자아정체감	.257**	.256**	.082	-.334**	-.166**	-.306**	1			
	8.자아존중감	.369**	.329**	.131**	-.289**	-.183**	-.289**	.602**	1		
	9.자아탄력성	.364**	.277**	.139**	-.179**	-.119*	-.184**	.523**	.573**	1	
	10.사회성 발달	.163**	.175**	-.036	-.171**	-.110*	-.156**	.597**	.460**	.429**	1
	11.삶의 만족도	.359**	.338**	.118*	-.220**	-.185**	-.250**	.434**	.662**	.520**	.361**
M	1.913	2.200	2.060	3.051	2.751	2.947	2.329	2.060	2.151	2.224	2.167
SD	.539	.595	.597	.629	.560	.573	.417	.441	.374	.665	.562

* $p<.05$ ** $p<.01$

2)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성 발달 매개효과 검증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
 에서 사회성 발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부모양육방식을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애정, 합리적 설명)과 부정적 부모양육방식(감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
 해서 Sobel Test를 함께 실시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5>
 와 같다.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Durbin-Watson 계수는 1.931에서 2.037
 사이로 오차항 독립성의 가정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
 과 검증 결과는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방식은 사회성 발달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beta=.186, p<.001$). 그리고 종속변인인 자아인식 중 자아정체
 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82, p<.001$). 또한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사회성 발달을 동시에 투
 입했을 때 자아정체감의 β 값이 유의미한 수준($\beta=.178, p<.001$)으로 떨
 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3.587, 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
 리고 종속변인인 자아인식 중 자아존중감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beta=.386, p<.001$). 또한 긍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사회성 발달
 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자아존중감의 β 값이 유의미한 수준($\beta=.312,$
 $p<.001$)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매개효과 유의성 검
 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3.439, 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인식 중 자아탄력성 역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beta=.357, p<.001$). 또한 긍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사회성 발
 달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자아탄력성의 β 값이 유의미한 수준($\beta=.288,$
 $p<.001$)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매개효과 유의성 검

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3.395$, $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기독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방식도 사회성 발달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beta=-.171$, $p<.01$). 그리고 자아정체감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beta=-.269$, $p<.001$).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사회성 발달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자아정체감의 β 값이 유의미한 수준($\beta=-.172$, $p<.001$)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3.330$, $p<.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beta=-.238$, $p<.001$).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사회성 발달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자아존중감의 β 값이 유의미한 수준($\beta=-.165$, $p<.001$)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3.225$, $p<.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 역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34$, $p<.01$).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사회성 발달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자아탄력성의 β 값이 유의미한 수준($\beta=-.063$, $p<.001$)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3.203$, $p<.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3〉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인식 간 사회성 발달 매개효과 검증($N=388$)

단계	모형	B	SE	β	t	$R^2(\text{Adj-}R^2)$	F
1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사회성 발달(a)	.241	.065	.186	3.718***	.034(.032)	13.824***
2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정체감(c)	.230	.040	.282	5.789***	.080(.077)	33.513***
3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정체감(c')	.145	.033	.178	4.377***	.387(.384)	121.834***
	사회성 발달→ 자아정체감(b)	.354	.025	.564	13.910***		

1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사회성 발달(a)	.241	.065	.186	3.718***	.034(.032)	13.824***
2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존중감(c)	.334	.040	.386	8.242***	.149(.147)	67.935***
3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존중감(c')	.269	.037	.312	7.221***	.306(.302)	84.980***
	사회성 발달→ 자아존중감(b)	.267	.029	.402	9.324***		
1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사회성 발달(a)	.241	.065	.186	3.718***	.034(.032)	13.824***
2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탄력성(c)	.261	.035	.357	7.527***	.128(.125)	56.662***
3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탄력성(c')	.210	.032	.288	6.472***	.264(.260)	69.180***
	사회성 발달→ 자아탄력성(b)	.211	.025	.376	8.449***		
1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사회성 발달(a)	-.274	.080	-.171	-3.408**	.029(.027)	11.612**
2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정체감(c)	-.270	.049	-.269	-5.485***	.072(.070)	30.087***
3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정체감(c')	-.173	.041	-.172	-4.238***	.385(.382)	120.902***
	사회성 발달→ 자아정체감(b)	.356	.025	.568	14.018***		
1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사회성 발달(a)	-.274	.080	-.171	-3.408**	.029(.027)	11.612**
2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존중감(c)	-.254	.053	-.238	-4.828***	.057(.054)	23.310***
3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존중감(c')	-.175	.048	-.165	-3.650***	.238(.234)	60.347***
	사회성 발달→ 자아존중감(b)	.287	.030	.432	9.587***		
1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사회성 발달(a)	-.274	.080	-.171	-3.408**	.029(.027)	11.612**
2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탄력성(c)	-.121	.045	-.134	-2.659**	.018(.015)	7.072**
3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탄력성(c')	-.056	.042	-.063	-1.344	.188(.184)	44.622***
	사회성 발달→ 자아탄력성(b)	.235	.026	.418	8.984***		

p<.01 *p<.001

3)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검증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Sobel Test를 함께 실시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Durbin-Watson 계수는 1.833에서 1.986 사이로 오차항 독립성의 가정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 <표 4>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방식은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beta=.385, p<.001$). 그리고 종속변인인 자아인식 중 자아정체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82, p<.001$). 또한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자아정체감의 β 값이 유의미한 수준($\beta=.135, p<.001$)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5.583, 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종속변인인 자아인식 중 자아존중감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86, p<.001$). 또한 긍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자아존중감의 β 값이 유의미한 수준($\beta=.154, p<.001$)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7.127, 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인식 중 자아탄력성 역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57, p<.001$). 또한 긍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자아탄력성의 β 값이 유의미한 수준($\beta=.184, p<.001$)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6.218, 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방식도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beta = -.205, p < .01$). 그리고 자아정체감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beta = -.269, p < .001$).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사회성 발달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자아정체감의 β 값이 유의미한 수준($\beta = -.187, p < .001$)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3.741, p < .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beta = -.238, p < .001$).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자아존중감의 β 값이 유의미한 수준($\beta = -.187, p < .001$)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4.028, p < .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 역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4, p < .01$).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자아탄력성의 β 값이 유의미한 수준($\beta = -.029, p < .001$)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3.899, p < .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인식 간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검증(N=388)

단계	모형	B	SE	β	t	$R^2(\text{Adj-}R^2)$	F
1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삶의 만족도(a)	.423	.052	.385	8.214***	.148(.146)	67.466***
2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정체감(c)	.230	.040	.282	5.789***	.080(.077)	33.513***
3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정체감(c')	.110	.040	.135	2.744**	.204(.200)	49.498***
	삶의 만족도→ 자아정체감(b)	.284	.037	.382	7.768***		
1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삶의 만족도(a)	.423	.052	.385	8.214***	.148(.146)	67.466***
2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존중감(c)	.334	.040	.386	8.242***	.149(.147)	67.935***

3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존중감(c')	.133	.035	.154	3.802***	.458(.455)	163.272***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b)	.473	.032	.602	14.837***		
1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삶의 만족도(a)	.423	.052	.385	8.214***	.148(.146)	67.466***
2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탄력성(c)	.261	.035	.357	7.527***	.128(.125)	56.662***
3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탄력성(c')	.135	.034	.184	3.995***	.299(.296)	82.386***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b)	.299	.031	.449	9.718***		
1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삶의 만족도(a)	-.278	.067	-.205	-4.123***	.042(.040)	17.001***
2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정체감(c)	-.270	.049	-.269	-5.485***	.072(.070)	30.087***
3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정체감(c')	-.188	.046	-.187	-4.086***	.222(.218)	55.144***
	삶의 만족도→ 자아정체감(b)	.294	.034	.396	8.631***		
1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삶의 만족도(a)	-.278	.067	-.205	-4.123***	.042(.040)	17.001***
2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존중감(c)	-.254	.053	-.238	-4.828***	.057(.054)	23.310***
3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존중감(c')	-.114	.041	-.107	-2.774**	.449(.446)	157.258***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b)	.503	.030	.640	16.575***		
1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삶의 만족도(a)	-.278	.067	-.205	-4.123***	.042(.040)	17.001***
2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탄력성(c)	-.121	.045	-.134	-2.659**	.018(.015)	7.072**
3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자아탄력성(c')	-.026	.040	-.029	-.643	.271(.267)	71.732***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b)	.342	.030	.514	11.574***		

p<.01 *p<.001

〈표 5〉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유의성 검증

독립변인	경로모델		Sobel Test Z	P
	매개변인	종속변인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 사회적 발달	⇒ 자아정체감	3.587	.000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 사회적 발달	⇒ 자아존중감	3.439	.000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 사회적 발달	⇒ 자아탄력성	3.395	.000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 사회적 발달	⇒ 자아정체감	-3.330	.001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 사회적 발달	⇒ 자아존중감	-3.225	.001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 사회적 발달	⇒ 자아탄력성	-3.203	.001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 삶의 만족도	⇒ 자아정체감	5.583	.000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 삶의 만족도	⇒ 자아존중감	7.127	.000
긍정적 부모양육방식	⇒ 삶의 만족도	⇒ 자아탄력성	6.218	.000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 삶의 만족도	⇒ 자아정체감	-3.741	.000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 삶의 만족도	⇒ 자아존중감	-4.028	.000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 삶의 만족도	⇒ 자아탄력성	-3.899	.000

III. 닫는 글

1. 연구의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발달과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의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사회성 발달, 자아정체감, 삶의 만족도에서 모든 변인들은 상호 간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한 정적(+) 및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자녀의 자아인식이 유의한 정적(+) 관계를, 부정적 양육방식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김희수, 2005; 송현옥, 박아청, 최성열, 2010; 임양미, 2018)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부모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과 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인식의 영향력을 선형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인식의 모든 범주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의 회귀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의 회귀모형은 t 값이 각각 5.789, 8.242, 7.527로, 모두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리고 R^2 이 각각 .080, .149, .128로, 각각 8%, 14.9%, 12.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부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인식 모든 범주의 회귀모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의 회귀모형은 t 값이 각각 -5.485, -4.828, -2.659로,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은 유의수준 $p < .001$ 에서, 자아탄력성은 $p < .01$ 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리고 R^2 이 각각 .072, .057, .018로, 각각 7.2%, 5.7%, 1.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긍정적일 경우 자아인식에도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일 경우 자아인식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인식의 유의한

관계를 검증한 국내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김정욱, 김재호, 2018; 김희수, 2005; 송현옥, 박아청, 최성열, 2010; 오윤선, 2008; 임선아, 2014; 장인실, 장석진, 2012; 조준호, 김두규, 허균, 2013). 따라서 기독교 후기청소년들의 가정과 학교 및 교회와 같은 공동체는 이들이 부모양육 방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여 연구하고 현실적 대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성 발달과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를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식에 따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사회성 발달을 투입한 후의 β 값이 각각 .178, .312, .288로 매개변인 투입 전보다 유의미하게 떨어졌다. 이와 함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도 수행한 결과 각각 $Z=3.587, 3.439, 3.395$ 였으며, 모두 $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방식과의 관계에서도 β 값이 각각 $-.172, -.165, -.063$ 으로 매개변수 투입 전보다 유의미하게 떨어졌다. 이와 함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도 수행한 결과 각각 $Z=-3.330, -3.225, -3.203$ 이었으며, 모두 $p<.01\sim 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긍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를 투입한 후에도 β 값이 각각 .135, .154, .184로 매개변인 투입 전보다 유의미하게 떨어졌다. 이와 함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도 수행한 결과 각각 $Z=5.583, 7.127, 6.218$ 이었으며, 모두 $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방식과의 관계에서도 β 값이 각각 $-.187, -.107, -.029$ 로 매개변수 투입 전보다 유의미하게 떨어졌다. 이와 함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도 수행한 결과 각각 $Z=-3.741, -4.028, -3.899$ 였으며 모두

$p < .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성 발달과 삶의 만족도는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성 발달이 활발할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후기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사회성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 구축과 이들을 양육 및 지도하는 가정과 학교, 교회, 지역사회 공동체의 다양하고 활발한 개별적·통합적 노력이 요구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결과를 중심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직접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평소 이들이 부모의 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가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자아인식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선행연구(민경림, 2009; 송기정, 2018)와도 맥락을 함께 한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교회,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 부모양육방식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양육방식은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삶의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부모양육방식은 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이는 사회에서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평소에 얼마나 부모의 양육방식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가는 바람직한 일상생활 및 학업, 사회생활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의 긍정적 변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부모자녀 간 관계의 현주소를 재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관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관련 부모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매개변인으로 투입된 사회성 발달과 삶의 만족도는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으로부터 건강한 자아인식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사회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 방안의 구축과 지도하는 가정, 학교 및 교회 공동체의 활발하고 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인식을 위해서 지자체 및 국가에서도 관련 기관과 인력을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들의 사회성 발달의 역량과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도 함께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실현가능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분화된 프로그램 역시 개발 및 공유되어 교육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과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집대상을 일부 청소년 집단이 선정된 통계자료에서 기독교 후기청소년만 추출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후기청소년을 이 연구결과에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대상 확보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독교 후기청소년의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자기보고 형식의 질문지이다. 만약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입장과 함께 객관적 측정 도구를 추가로 측정할 수 있다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

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 진행되었다. 각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질적연구와 실험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기독교 후기청소년들로 한정되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지리적 배경에서 연령 및 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연구를 비롯하여 이를 비교하는 연구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연구결과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강연정 (2012). 교회 위기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기독교 교육상담적 접근. **복음과 상담**, 18, 53-57.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0). **심리척도핸드북 I**. 서울: 학지사.
- 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대한간호과학회지**, 36(1), 151-158.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금순, 김보미 (2017).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3), 375-383.
- 김남정, 임영식 (2012).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219-240.
- 김도희 (2014).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사회성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0(4), 213-239.
- 김미경 (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기독교상담: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17, 74-100.
- 김미정 (2013). 어머니의 대상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8(4), 285-303.
- 김민주, 윤기봉 (2018).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373-388.
- 김사훈 (2005). 내면화 과정과 하나님이미지 형성간의 관계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열 (2014). 기독교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성서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성수 (2013). 저소득가정 초기청소년의 정서지능, 사회성 향상을 위한 미술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학교사회복지**, 25, 207-232.
- 김신섭, 정구철 (2015). 목회자 아내의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영적 체험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242-253.

- 김신영, 백혜정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한국청소년발달 지표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영숙 (1997).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 주는 가정환경의 통제변인.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주, 이시자 (2015).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4), 281-300.
- 김재연 (2008). 청소년의 영적성숙도와 종교성향과 자아탄력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가톨릭대학교상당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욱, 김재호 (201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 자녀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 인식과의 관계. *실과교육연구*, 24(1), 111-132.
- 김정현, 정인경 (2015).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아버지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27(1), 111-126.
- 김진영, 박승민 (2012). 기독교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분화 그리고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2), 115-140.
- 김혜원, 홍미애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269-297.
- 김홍근 (2003). 기독교 영성에 관한 대상관계이론 및 자기심리학적 연구. *호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수 (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 63-88.
- 나성윤 (2017).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윤주 (2009).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아동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관한 비교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미숙, 권미경 (2011). 휴대폰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차이비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4(2), 76-83.
- 문용린 (1998). *교육학 대백과사전 서울대학교교육학연구소 편*. 서울: 하우.

- 문희경 (2007). 대상관계이론의 관계중심 목회상담적 적용 가능성 연구. 충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경림 (2009). 목회자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을 중심으로. 충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균달, 이수영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사회복지경영연구**, 4(2), 249-270.
- 박미하 (2017).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복음과 상담**, 25(1), 37-64.
- 박미혜 (2014). 영재학생의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소연, 김한별 (2013). 대학생의 저널쓰기를 통한 자아성찰 과정에서의 자아정체감 형성 경험 분석. **교양교육연구**, 6(1), 153-178.
- 박아청 (2006). **성격발달심리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박진우 (2018). 목회자의 소명 경험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59, 217-245.
- 서경림, 한재희 (2010). 기독교인 미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분화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9, 111-136.
- 서기남, 문혁준 (2008). 발달적으로 적합한 실제(DAP)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기 양육경험, 양육 효능감 및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9(3), 23-40.
- 손신영 (2017).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8(3), 29-44.
- 송기정 (2018). 목회자 자녀들의 분노표출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연옥 (2008).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간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현옥, 박아청, 최성열 (2010). 청소년의 가정환경,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17(2), 109-129.
- 양하련, 이은주 (2014). 청소년의 사회적 성취목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 친사회성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2(1), 235-260.
- 오선영, 송순 (201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가족기능 및 세대 간 결속감이 학

- 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6(1), 125-138.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특성과의 관계. **한국행동 과학연구소**, 11(1), 1-15.
- 오윤선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분노 및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0(3), 91-104.
- 오윤선 (2012). 말씀묵상기도를 통한 용서프로그램이 기독교 청소년의 용서경험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복음과 상담**, 19, 217-244.
- 오윤선 (2013).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과 자아탄력성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21, 190-220.
- 오윤선 (2017). 기독교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감사성향이 행복증진 활동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25(2), 149-180.
- 오윤선, 김미숙 (2017).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이론과 실제**. 파주: 양성원.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학연구**, 16(4), 189-206.
- 윤다운, 권경인 (2015). 한국인 선교사 중고생 자녀의 상담요구 조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2), 103-137.
- 이순복, 원지현 (2013). 유아교사의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3), 262-281.
- 이영주 (2007). 부모의 하나님 개념과 신앙생활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연, 조연희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녀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 교육연구**, 7(2), 53-70.
- 임경수 (2014). **애착이론과 역기능 발달 상담**. 서울: 학지사.
- 임선아 (2014).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을 매개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비행경험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비교. **청소년학연구**, 21(9), 79-100.
- 임선희, 명재신 (2016).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자아 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12), 327-347.
- 임양미 (2018). 부모학대 및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30(2), 57-75.
- 장인실, 장석진 (2012).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9(6), 291-313.

- 전란영, 김희화 (2016). 부모의 비밀관적 양육 및 과잉간섭적 양육이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2), 57-67.
- 전명순, 김태균 (2018). 부모의 양육태도, 우울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아정체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시설환경**, 16(1), 123-132.
- 전소연, 주은지 (2018).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9(5), 455-470.
- 전요섭 (2013).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신앙, 자아존중감, 결혼 적응,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고립감 및 학교부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복음과 상담**, 20, 246-279.
- 전현정, 정혜원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중단 매개효과 검증 :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2), 215-242.
- 정영혜, 양성은 (2011).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질적 연구 :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1-19.
- 조영미, 이동영 (2016). 아동청소년대상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사회성 증진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3(2), 135-162.
- 조준호, 김두규, 허균 (2013).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성과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25(3), 616-624.
- 조하영, 박성연 (2013). 아버지의 양육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3), 59-74.
- 주동범, 정일환 (2018). **교육사회학**. 파주: 양성원.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1). **대학가정학회지**, 31(2), 56-73.
- 최예나 (2018). 노래 중심 집단 음악치료가 시설 미혼모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4(4), 81-95.
- 최유선, 손은령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33-247.
- 최윤희, 김순자 (2011).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43-762.
- 최정혜 (2018). 유아기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관에 대한 소고. **현대교육연구**, 30(2), 131-146.

- 최주혜 (2013). 한국 목회자 자녀의 수치심. *신학과 실천*, 36, 389-415.
- 최후남, 김태균 (2012). 가족구성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인권복지연구*, 12, 63-8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사업개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제 1-7차 조사 데이터 유저가이드*.
- 한누리, 문희준 (2015).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부부관계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4(2), 205-218.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허혜경, 김혜수 (2010). *청년발달*. 서울: 학지사.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tle, S. E., & Anderson, S. A. (1991). Similarity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levels of individuation. *Adolescence*, 26, 913-924.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erger, E. H. (1991). *Parents as partners in education: The school and home working together*. Merrill Publishing Company.
- Block, J. (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281-295.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randen, N. (1992). *The Power of Self-Esteem*. Deerfield Beach, Florida: Health-Communications Inc.
- Bronfenbrenner, U. (1975). Is early intervention effective. *Handbook of evaluation research*, 2, 519-603.

- Burr, W. R. (1970).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and the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29–37.
- Carlo, G., Mestre, M. V., McGinley, M. M., Samper, P., Tur, A., & Sandman, D. (2012). The interplay of emotional instability, empathy, and coping on prosocial and aggressive behavi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5), 675–680.
- Cohen, J. (1990).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during middle child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terloo, Ontario, Canada.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F: W. H. Freeman.
- David, A. S. (1990). 치유하시는 은혜(윤종석 역, *Healing Grace*). 서울: 두란노. (원전 1988 출판).
- De Jong, P. J., Sportel, B. E., De Hullu, E., & Nauta, M. H. (2012). Co-occurrence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in adolescence: differential links with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Psychological medicine*, 42(3), 475–484.
- Dekovic, M., & Janssens, J.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nkmeyer, D., & McKay, G. D. (1990).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Parenting teenagers*.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W. W. Norton & Co.
- Erikson, E. H.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Y: W. W. Norton & Co.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ley.
- Gary, R. C. (1996). 크리스찬 카운셀링(피현희, 이해련 역,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서울: 두란노. (원전 1988 출판).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 37–46.
- Gresham, F. M., & Elliott, S. N. (1984).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of children's social skills: A review of methods and issues. *School*

Psychology Review, 13(3), 292–301.

Harter, S., & Pike, L.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6), 1969–1982.

Havighurst, R. J. (1968).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ging. *The Gerontologist*, 8, 67–70.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2, NY: Henry Holt and Company.

Kalish, R. A. (1975). *Late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Kaplan, H. B. (1982). Prevalence of the Self-Esteem Motive. In M. Rosenberg, & H. B. Kaplan(Eds.), *Social Psychology of the Self-Concept*(pp. 139–151). IL: Harlan Davison, Inc.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2.

Masten, A. S., Best, K. M., & Garmeazy, N. (1990). Resiliency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Medley, M. 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A caus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8–455.

Meeus, W. I. M., Oosterwegel, A., & Vollebergh, W. (2002).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and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5(1), 93–106.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hner, R. P. (1991).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theory*. NY: Sage Publication.

Ronald, C. J., & Medinnus G. R. (1967). *Child psychology : behavior and development*. NY: J. Wiley.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ic, 147*, 598–611.
- Schaefer, E. S. (1961). Converging conceptual models for maternal behavior and for child behavior. In J. C. Glidewell(Eds.), *Parental attitudes and child behavior*(pp. 124–146).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Y: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Zahn–Waxler, C., & Robinson, J. (1995). Empathy and guilt: Early origins of feelings of responsibility. In J. P. Tangney & K. W. Fischer(Eds.),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pp. 143–173). NY: Guilford Press.

【 Abstract 】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Self-Awareness
in Christian Post-Adolesc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ity development and life satisfaction

Oh, Yoon Sun & Choi, A Ram

korean bible university & Hyundai cyber continuing education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ity develop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self-awareness(ego-identity, self-esteem, ego-resiliency) in Christian post-adolescents. And the study seeks to provide basic data for teaching and counseling at the pastoral and educational sit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conducted to measure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Christian post-adolescents and self-awareness, sociality development and life satisfaction from 388 Christian post-adolescents. This study used some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s 7th statistical data(result of KCYPS). And using SPSS Version 21.0, and the methods of statistics wer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The analyzed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Christian post-adolescents, self-awareness, sociality development, life satisfaction had a positive and negative significant correction($p < .01$). Second,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Christian post-adolescents directly affect self-awareness. Third, sociality development and life satisfaction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Christian post-adolescents and self-awar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not dis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preceding study of general adolescents. On count of limitations of the stud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extensive qualitative research and research programs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parenting style, self-awareness, sociality development, life satisfaction, Kcyps